

사 실

세계불교여성 학술대회의 의미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불교여성 학술대회 조직위가 구성되어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 더구나 "여성과 불교"라는 메인타이틀 아래 "한국불교계의 비구니"의 역할과 역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 여성과 불교를 주제로 거행되는 메타드 국제학술대회는 초유의 일인지라 관심을 끈다.

부처님 재세 당시 엄연히 존재했던 비구니들이 남방불교권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 되었다. 동북아권에서도 대만과 한국만이 비구니교단의 특성을 유지하며 수행과 사회운동 양면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비니계의 중주국은 대만과 한국이라는 인식이 세계불교계에 각인되어 있다.

내년 세계불교여성학술대회에는 국내외의 세계적 여성불교전문가들이

참가할 것이라 한다. 수행자와 학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해 불교적 관점에서 토론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한국불교가 비구니 중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임이 분명하다.

불교적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 것 역시 분별심이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성의 사회적 역할과 그에 수반하는 성의 사회적 차별은 많은 지성인들에게 관심과 고민을 안겨준 것 역시 사실이다. 관계자들은 내년의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조계종단 내지 불교종단협의회는 불교계의 만년대계를 위해 이 대회가 원만하게 성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불련 동문찾기와 후원운동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동문 찾기와 후원 운동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대불련의 활성화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그리운 대불련 동문 찾기 및 대학생 포교 후원 캠페인'을 본사와 함께 벌이기로 했다.

대학생 포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대학 불교학생회에 가입자가 줄어들어 불교학생회 자체가 없어진 곳이 생겼는가 하면, 대학 불교학생회의 연합체인 대불련 회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바라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일이 바로 몇그레의 일이다. 그러나 이 단계를 거쳐야 이 지경이 되었던지 탄식만 하기에는 아직 한국불교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한국불교계는 열불처럼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부르

짚어 왔다. 근대문명이 도입된 이래 한결같은 화두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직도 교육이나 인재발사는 승려를 양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불교계 현실이다.

40여년 역사의 대불련을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 특히 조계종단은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운운하며, 노력 없이 익은 과일만 챙기려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들의 활성화와 발전이 곧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종단 예산에 대불련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법망구의 거창한 구호보다 진정 커피 몇 잔 아껴 이들을 도와 줄 수 있는 후원 운동에 나나없이 동참하자. 그것이 작게나마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군법사 수적 열세 · 파병땀 소외

군종장교 불균형 심각

**개신교 58%에 불교는 25% 불과
군불교위, 진급·수급 균형 촉구**

개신교 군종장교가 전체 480명 가운데 280명(58.3%)에 달하는 반면 불교 군종장교는 120명(25%)에 불과해 종교간 군종장교의 비율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종활동을 지원하는 외부 성직자도 목사가 473명으로 스님 79명보다 6배나 많았다.

이같은 내용은 불교 군종장교를 파송하고 있는 조계종 불교교위(위원장 성광)가 최근 작성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위직인 영관급 군종장교는 불교가 35명(22.3%)인 데 비해 개신교는 102명(65.0%)으로 전체 군종장교의 비율보다 큰 편차를 보였다. 특히 군종장교의

최고 계급인 대령은 개신교가 5명인데 비해 불교는 2명에 불과했다. 가톨릭의 4명 보다 작은 수치다.

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육군의 경우도 불교 군종장교는 24.3%인 84명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개신교 군종장교는 61%인 211명에 달했다. 특히 전제 영관급 군종장교 115명 가운데 개신교 군종장교가 78명(67.8%)으로 불교 군종장교 23명의 3배를 훨씬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군불교위원회는 국방부에 형평성을 고려해 군종장교의 진급과 수급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1965년 베트남 전 파병 이후 군법사의 해외 파병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본부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 전을 포함해 99년 동티모르 내전과 93년 소말리아 내전 등 유엔평화유지군 국군 파병 시 군법사 파견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소말리아 파병 때에는 군목사 2명, 동티모르 파병 때에는 군신부 7명과 군목사 1명 등 군신부와 군목사만 파견됐다. 또 지난 4월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으로 파병된 국군 서회부대 역시 군목사 1명만 군종장교로 파견돼 종교편향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외파병 군법사 제외

**1965년 베트남전 이후 전무
국방부 편향 시정에 긍정적**

이에 대해 불교계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군 내 각종 종교정책에서 불교가 소외당했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불교계 내부에서부터 자기점검을 통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군내 종교편향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3일 국방부에서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지은 국방부 차관보는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예정된 이라크 2진 파병에서 군법사가 파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출가자 연령제한 공청회

25기 행자교육원 입교 앞뒤 큰 관심

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가 11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출가연령 제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40세 이하로 출가연령을 낮춘 이후 첫 적용되는 제25기 행자교육원의 입교지원 서류접수(13~20일)를 앞두고 열리는 자리

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해 9월 승가교육의 질을 높이고 승가 위계 확립을 위해 출가연령을 5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낮췄다. 하지만 이후 출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처님 법에 맞지 않고, 뒤늦게 발심한 고행 출가자에게도 길을 터줘야 한다

는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권형진 기자

**6·15공동선언 3돌 기념
조계사서 남북 동시법회**

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는 6·15 공동선언 3돌 기념 조계종 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가 14일 낮 12시 조계사에서 열린다. 이날 법회는 통일기원 타종을 시작으로 한화, 남북불자들이 보내는 통일메시지, 남북공동발원문 순으로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 주요 보직자들의 종교분포는 불자 36명, 무교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국대 인사관리팀이 최근 한편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수계를 받아 무교는 영상정보통신대학원과 문과대학장 2명이다. (관련기사 5면)

동국대 주요보직자 38명중 불자 36명 무교2명

작성한 학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등 주요보직자 38명의 종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자 34명 무교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5월 20일 열린 수계식에서 대학원장, 야간대 교무처장 2명이

들은 5일 "주요 보직자중에 건학이념에 상반되는 인사가 있다"며 "보직자들은 건학이념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천성산 환경보존위·뉴욕사원련 불교시민단체 지원대상으로 선정

조계종 총무원회는 5일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와 조계종 뉴욕사원연합회 등을 2003년도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지원 대상단체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 대상단체 및 프로그램은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환경백서 발간) △뉴욕사원연합회(UN본부내 종단의 NGO활동 연계 사업)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귀뚜라미 어린이

자연체험교실) △불교환경연대(교계 온라인 동호회 및 네티즌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불교재가연대(사찰의 지역화 전략모델 개발 및 '매뉴얼 북' 제작) △불교인권위원회(불교인권생명윤리연구소 발족) △조계종 포교사단(탈북자 포교센터 구축 사업) 등 모두 7개 단체다. 지원 내용은 총무원 회의록 거쳐 확정된다.

한명우 기자

'통합신도회 역할·방향'

조계종중신회 워크숍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13~14일 서울 북은사에서 통합신도회의 역할과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앙신도회 이상근 총무부장과 조계종포교원 박용규 신도과장이 '신도회 통합의 의미와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신도조직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대구지역신도회 박진수 사무국장, 김철현 6교구신도회 사무국장, 김석두 불교레크레이션 협회 사무국장이 각각 발제한다. 참가자들의 종합·평가 토론도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유승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o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김신대서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갑산노인자서연보실록 慈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갑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주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 傳記라기보다는 년하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자신을 **갑산** (淸山, 1546~1623) 스님은 운서 주공, 자백 진가, 우익 지옥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差會를 열어 법을 설하여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법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巖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울진이 **대성** (大晟) 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리엔 서적들을 '아누라찰라 총서' (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1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